

과수 언 피해 우려... 농가 사후관리 중요

농진청, “언 피해 본 나무는 가지치기 늦추고, 방제 작업 꼼꼼히”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은 2월 초 한파로 추위에 견디는 힘이 비교적 약한 복숭아와 포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며, 철저한 재배관리를 당부했다. 기온이 영하 15도(℃) 이하까지 떨어지는 한파는 과수 농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겨울잠에서 깬 과일 나무는 언 피해(동해)를 볼 우려가 크므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

사과, 배, 복숭아 등 과일나무가 언 피해에 견딜 수 있는 한계 온도는 과종에 따라 다르지만, 복숭아와 포도는 사과, 배보다 언 피해(동해) 한계 온



나무 파열부위 고무밴드로 감싼 모습

도가 높아 큰 추위가 아니어도 피해를 보기 쉽다.

과수에 언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

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피해 나무가지의 수피(껍질)를 벗겼을 때 갈색이 보이거나 수액이 누출되는 등 손상이 보이면 3월 중순 이후로 가지치기 시기를 늦추거나 나무 세력(수세)을 조절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한다.

언 피해로 수분 손실이 심각해지면 물대기(관수) 작업을 통해 토양 수분을 유지하고 나무 세력 회복을 돕는다. 병해충 저항성도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방제 작업을 꼼꼼히 실시한다.

특히 질소비료를 과하게 주지 말고, 칼륨과 인산 비료를 적절히 사용하

나무의 회복력을 높여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언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뿌리 부분을 덮어주거나 방풍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농촌진흥청은 피해 발생 현황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농가 협조를 통해 추가 피해 방지와 복구 지원 등 현장 기술지원에 힘을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작물부 박정관 부장은 “올해는 평년보다 봄이 일찍 시작되고 과수 꽃눈이 적어 열매양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철저한 재배 관리와 열매양 확보를 통해 예상치 못한 기상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옥기기자



캠틱종합기술원이 운영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전주드론제작소 왕왕스테이션'이 2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획득. 국내 최고의 창의혁신 기관으로 우뚝섰다.

드론제작소 창의혁신 중심으로 우뚝

캠틱, 왕왕스테이션 2년속 최우수 S등급 획득

캠틱종합기술원(원장 노상훈)이 운영하는 메이커스페이스 '전주드론제작소 왕왕스테이션'이 2년 연속 최우수 S등급을 획득하며 국내 최고의 창의혁신 기관으로 우뚝섰다.

20일 캠틱종합기술원(이하 캠틱)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은 최근 전국 200여 개의 메이커스페이스를 대상으로 한 사업운영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는 S·A·B·C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캠틱은 2023년 최우수 S등급에 이어 2024년에도 S등급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S는 전국 42개 메이커스페이스 가운데 상위 20%만 뽑혔다.

캠틱은 특히 이번 평가에서 예비창업자 발굴과 육성, 시제품 제작 지원, 제조창업 지원 등 항목에서

탁월한 실적을 인정받았다. 전담 인력의 전문성 강화 노력과 장비·시설의 안전관리 시스템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드론제작소 왕왕스테이션은 드론 추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전주의 지역특화 산업인 드론 산업의 예비창업자 지원을 목표로 2022년 9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전주첨단벤처단지 내에 오픈했다. 기존의 메이커스페이스와 차별화된 드론 특화 공간으로 시제품 제작부터 창업지원까지 드론 관련 산업 생태계의 씨를 뿌리고 활성화하는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주드론제작소 왕왕스테이션은 국내 최고의 드론을 활용한 창의적인 프로젝트 구현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다.

/김옥기기자

농협손보 전북, 2025년 농작물 재해보험 원예시설 23종 판매

NH농협손해보험 전북총국(총국장 김용재)은 2025년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23종)상품 판매를 시작해 올해 11월 28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은 시설물의(하우스 등) 손해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설작물엔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참외, 고추, 멜론과 장미, 카네이션, 백합 등 화훼를 포함 23종 품목에 대한 보장을 제공한다. 태풍, 우박, 지진 등 자연재해 뿐 아니라 새 및 동물로부터 피해 받는 조수해 보장과 함께 화재 다양한 재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올해 원예시설 보장기준에 일조량 부족 보장기준을 신설하고, 부대시설 항목에 선별기 등을 추가하는 등 개선이 되었다.

또한 가입 농가는 필요에 따라 보장받는 재해 중 일부를 제외해 보험료를 낮출 수도 있다.

정책보험인만큼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국가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여기에 전북의 각 지자체에서 35~50%를 추가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시군에 따라 0~15%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2024년엔 호우 및 대설 등 자연재해와 화재로 인한 시설농가 피해가 심각했으며, 전북 내에서 “농작물재해보험 원예시설” 상품으로 2,388농가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약 223억원을 포해 농작물재해보험 전체 1,341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보험가입기간은 연중 운영되고 있어 농가경영의 안전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기후변화로 인한 ‘배추’ 수급문제 공동대응 나서

aT, 한국원예특작과학원과 MOU 체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원장 김명수)은 20일 aT센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상호 협력과 원예농산물의 생산·유통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양 기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우수 신품종 개발과 개발 후 유통·

소비 지원 △원예농산물 재배적지 발굴과 스마트농업기술 보급 △MA* 포장기법 실증 농산물 저장기간 개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이상기후로 고령지지역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배추의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름배추 신품종 육성과 재배적지 발굴을 목표로 하는 신

규 사업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해발고도 400~500m 이상의 준고랭지 지역에서 ‘하리파’ 등 더위에 강한 신품종을 시범 재배하고 수확된 배추는 정부가 수매해 수급 물량으로 확보한다. 동시에 김치 제조 실증 검사도 진행해 신품종 검증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aT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원예농산물의 생산과 수급이 안정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홍문표 aT 사장은 “농산물 수급문제는 생산과 유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할 때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은 단순한 선언적 행사가 아닌 기후변화로 인한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aT는 협약식에 이어 개최된 제19회 원예산업 정책토론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만호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20일 aT센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상호 협력과 원예농산물의 생산·유통 협업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개공, 전주·익산 국민임대아파트 친환경 보일러 교체 완료

전북개발공사는 전주 평화 지인리 아파트와 익산 송화 지인리아파트의 1.178세대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체는 두 지역이 대기질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반영해 저녹스(질소산화물, NOx) 친환경 보일러로

진행되었으며, 설치가 불가능한 일부 세대를 제외하고 1등급 콘덴싱 보일러를 설치하였다.

전북개발공사는 이와 같은 친환경적 조치를 통해 대기질 개선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난방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교체 작업은 환경을 생각한 지속 가능한 주거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주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새만금청·한전, 새만금 산단 전력공급 확대 ‘맞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20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이하 산단) 기업들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사장 김동철)와 ‘전력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전력공사의 보조사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고, 전력공급 능력을 기존에 비해 500메가와트(MW)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기존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은 총사업비 510억원(국비 255억원, 한전 255억원)으로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이차전지 업종에만 전력공급이 가능하였으나,

협약을 통해 이차전지 업종의 대규모 전력공급을 포함하여, 향후 조성될 새만금 산단 3.7공구의 일반수요에도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시설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부담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앞으로 새만금 산단에서의 전력공급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예정이다.

조흥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새만금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기업 할 수 있도록 전력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다각적인 지원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